

##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일선\*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A Study on Revitalization of Experiential Fishing Villages in Korea

Ilsun Choi\*

\* Korea Maritime Institute

**핵심용어** : 어촌체험마을, 생태관광, 어촌관광

**Key Words** : experiential fishing village, ecotourism, fishing village tourism

#### 1. 개요 및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어촌관광 활성화 정책 중 하나인 어촌체험마을의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관광 및 농산어촌생태체험마을을 비교·분석하여 어촌체험마을의 특성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농산어촌관광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1,900여개의 마을에서 농산어촌관광산업을 진행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 테마마을사업, 산림청의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마을사업, 행정자치부의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사업, 정보화시범사업, 농협중앙회의 팜스테이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문헌 조사와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국내 농산어촌 체험마을의 선진사례를 분석하여 어촌체험마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결과 및 고찰

농촌체험마을은 2002년부터 정부의 본격적인 마을단위 정책으로 추진되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2015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농촌체험마을은 873개로 나타난다. 농촌체험마을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자연채취, 수렵채취, 농사체험, 농촌생활체험(풍습 및 생활), 토속음식제조체험, 전통놀이체험, 축제체험 등이다(유광민·김기완, 2009). 산촌체험관광마을은 현재 산

촌생태마을로 불리며 1995년에 개시된 산촌개발사업 아래 2007년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꾸어 전개되었다(서정원·김성학, 2013). 해양수산부에서는 2001년부터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시작하였다(해양수산부, 2016). 한해 약 100만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어촌체험마을은 현재 100개소가 있으며 전남과 경남지역에 위치한 어촌체험마을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한다(해양수산부, 2016). 어촌체험마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각종 어로기법, 어류·패류·해조류 잡기, 어선·어장·어시장 등을 체험하는 유형인 어업체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갯벌체험, 해양레포츠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오충호, 2015; 해양수산부, 2016). 어촌체험마을은 동·서·남해안의 문화적 특성을 살리지 못하여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 특히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어업체험의 경우 어업 자원에 대부분 의지하여 단순이용을 위주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체험의 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4. 결론

어촌체험마을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첫째, 어촌체험마을이 동·서·남해안의 지역별 특징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연 자원에 의지하기 보다는 인문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둘째, 어촌체험마을은 생태관광의 형태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이는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환경적으로 보존을 지지하며 어촌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환경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야할 것이다. 셋째, 농·산촌 생태체험마을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어촌생태마을만의 브랜드화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어촌체험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와 재방문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와는 매우 다른 특성인 어촌, 어항, 어장을 활용한 일탈성 또는 신기성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First Author : ilsunchoi@kmi.re.kr, 051-797-4727